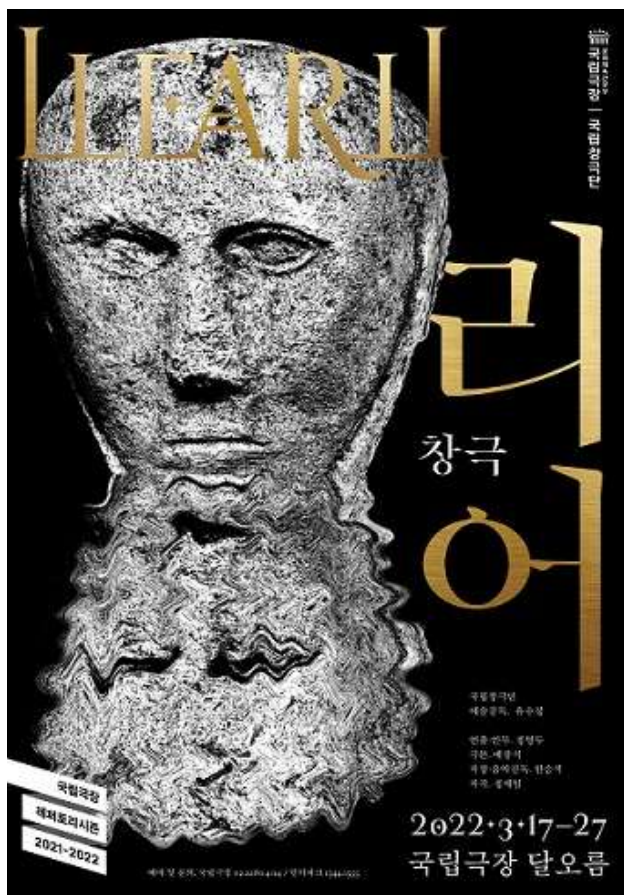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2022.2.23.)	공연문의	국립극장 홍보팀 차경연 02-2280-5832 공연기획팀 조화연 02-2280-4136
	예매문의	국립극장 고객지원팀 02-2280-4114
	사진 및 자료	웹하드 www.webhard.co.kr (ID: ntokpr / PW: 1234) [21-22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국립창극단]→[리어] 폴더

창극으로 재탄생하는 셰익스피어 비극 국립창극단 신작 '리어'

- ◆ '리어왕'이 던지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고찰, 창극으로 느끼다
 - 셰익스피어 비극의 정수, 우리 고유의 언어와 소리로 재창작
- ◆ 정영두·배삼식·한승석·정재일, 최고들의 만남
 - 각 분야 거장과 국립창극단이 의기투합한 신작
- ◆ 무대 위 20톤의 물, 작품 전반을 휘도는 공감각적 물의 심상
 - 변화무쌍한 물의 속성을 통해 인간 욕망의 소용돌이 표현



공연명	국립창극단 '리어'
일시	2022년 3월 17일(목)~2022년 3월 27일(일) 화·수·목·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주요 제작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수정, 연출·안무 정영두, 극본 배삼식, 작창·음악감독 한승석, 작곡 정재일, 무대디자인 이태섭, 조명디자인 마선영, 의상·장신구디자인 정민선, 분장디자인 정지호 등
주요 출연진	리어 김준수 글로스터 유태평양 거너릴 이소연 리건 왕윤정 코딜리아·광대 민은경 에드거 이광복 에드먼드 김수인 등 국립창극단 및 객원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35,000원, A석 2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
소요시간	150분(중간휴식 포함) 예정
예매	국립극장 02-2280-4114 www.ntok.go.kr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창극단(예술감독 유수정)은 3월 17일(목)부터 3월 27일(일)까지 창극 '리어'를 달오름극장에서 초연한다.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창극화한 작품으로, 서양 고전을 우리 고유의 언어와 소리로 새롭게 풀어낸다. 무용·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는 정영두가 연출과 안무를, 한국적 말맛을 살리는데 탁월한 극작가 배삼식이 극본을 맡았다. 음악은 창극 '귀토'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등에서 탄탄한 소리의 짜임새를 보여준 한승석이 작창하고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음악감독 정재일이 작곡한다.

창극 '리어'는 시간이라는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2막 20장에 걸쳐 그려낸다. 창극을 위해 극본을 새롭게 집필한 배삼식 작가는 삶의 비극과 인간에 대한 원작의 통찰을 물(水)의 철학으로 일컬어지는 노자의 사상과 엮어냈다. 리어와 세 딸, 글로스터와 두 아들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망을 대비시키면서 세대와 관계없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한다. 첫 창극 연출에 도전하는 정영두 연출은 이번 작품에서 극 중 인물을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자의 생을 살아내고 욕망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리는 데 집중한다. 정 연출은 “변화무쌍한 물결 위에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뒤엉켜 흐르는 여정”이라며, “고요해지지 않으면 들여다볼 수 없는 물처럼 흐려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리어'라는 인물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라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맛깔스러운 대사에 묵직한 사유를 담고 있는 배삼식의 극본은 한승석·정재일의 음악과 만나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작창가 한승석은 상하청을 넘나드는 음과 부침새(장단의 박에 이야기를 붙이는 모양)를 다채롭게 활용한다. 중오·광기·파멸 등 비극적인 정서를 담은 무게감 있는 소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면서도 '장기타령', 서도민요 중 '배치기' '청사초롱' '투전풀이' 등 대표적인 경기민요를 장면에 맞게 차용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작품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리 색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작곡을 맡은 정재일은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13인조 구성의 음악과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앰비언트 사운드를 절묘하게 조합해 작품의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무대는 고요한 가운데 생동하는 물의 세계로 꾸며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보여준다. 달오름극장 무대 전체에 20톤의 물이 채워질 예정으로, 수면의 높낮이와 흐름이 변화하며 작품의 심상과 인물 내면의 정서를 드러낸다. 제31회 이해랑연극상을 수상한 무대미술가 이태섭을 필두로, 창극 '패왕별희'에서 감각적인 조명디자인을 선보인 조명디자이너 마선영, 연극·무용·오페라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의상디자이너 정민선 등이 합세해 무대 미학을 완성한다.

화려한 제작진만큼이나 고정관념을 과감히 깬 캐스팅도 눈길을 끈다.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각각 리어와 글로스터 역을 맡았다. 이들은 '나이 듦'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며 분노와 회한, 원망과 자책으로 무너지는 인간의 비극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두 배우는 밀도 높은 감정선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저런 상황이라면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관객의 공감을 끌어낼 예정이다. '작은 거인' 민은경은 코딜리어와 광대를 오가는 1인 2역 연기를 펼치며 극과 극의 매력을 펼친다. 이외에도 이소연·왕윤정·이광복·김수인 등 국립창극단 배우들의 다채로운 면면과 조화로운 호흡을 엿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라 실시한다. 공연 예매·문의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 또는 전화(02-2280-4114)

공연 자세히 보기	3p
주요 제작진 소개	7p
주요 인물 및 출연진 소개	9p

■ 공연 자세히 보기

셰익스피어 영원의 고전 '리어왕'이 창극으로, 시간의 물결 위에서 우리 고유의 말과 소리로 재탄생

국립창극단 신작 '리어'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왕'을 창극화해 우리 고유의 언어와 음악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판소리는 물론 소설·영화·그리스비극·서양희곡 등 다양한 소재를 흡수하며 끊임없이 창극의 외연 확장을 추구해온 국립창극단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창극을 위해 극본을 새롭게 집필한 배삼식 작가는 삶의 비극과 인간에 대한 원작의 서늘한 통찰을 물(水)의 철학으로 일컬어지는 노자의 사상과 조화롭게 엮어냈다. 막이 오르면, 리어가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달은 듯 “상선(上善)은 약수(若水)일러니 만물(萬物)을 이(利)로이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저어하난 낮은 곳에 처(處)하노라”¹⁾고 노래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다고 말하지만, 리어는 곧 딸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로 확인하려 하며 또다시 어리석음에 빠진다. 결국, 유일하게 진실하고 애정 어린 침묵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막내딸 코딜리어를 잃고 파멸하는 리어의 모습은 끝없는 욕심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작품은 시간이라는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2막 20장에 걸쳐 그려낸다. 탐욕스러운 두 딸에 의해 치절하게 내몰린 후 막내딸 코딜리어의 진심을 깨닫는 리어, 두 눈을 잃고 비로소 장남 에드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깨닫는 글로스터의 이야기가 크게 두 축을 이루며 서로를 비춘다. 리어와 세 딸, 글로스터와 두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욕망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단순히 세대 간의 충돌이나 선악의 대립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괴리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각자가 정당한 욕망을 성취하려 애쓰는 모습을 다층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배삼식 작가는 “리어의 세계 안에서는 앞물이 흘러가고 뒷물이 흘러오듯 세대가 교체되고 각각의 욕망이 부딪치는데, 단순한 선악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 그들 각자가 정당한 욕망을 성취하려 애쓰는 것을 담으려 했다”라고 밝혔다.

※ '리어' 줄거리

리어왕은 자신이 늙고 병들자 세 명의 딸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한다. 첫째 딸 거너윌과 둘째 딸 리건은 수려한 말로 아침하여 리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가장 총애를 받았던 막내딸 코딜리어는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의 말만을 전해 빈손으로 왕국에서 추방당한다. 이후 리어는 두 딸과의 행복한 노년을 기대하지만, 원하는 바를 손에 넣은 두 딸에게 버림받는다. 한편, 둘째 아들의 음모로 반역자로 몰려 실명한 글로스터 백작은 리어왕을 찾아간다. 리어와 글로스터는 나란히 인간의 고집과 우매함이 불러온 증오와 광기, 그리고 파국을 마주한다.

1) 상선약수(上善若水) 수선이만물이부쟁(水善利萬物而不爭) 처중인지소오(處衆人之所惡) : 중국의 사상가 노자의 「도덕경」 8장 구절 중 하나로, 노자 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로 꼽힌다.

정영두 · 배삼식 · 한승석 · 정재일

동시대 공연예술의 정점 선보일 최고들의 만남



(왼쪽부터) 극본 배삼식, 연출·안무 정영두



(왼쪽부터) 작곡 정재일, 작창·음악감독 한승석 ©노승환

동시대 최고의 제작진이 국립창극단과 의기투합한 창극 '리어'는 2021-2022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공개 당시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정영두·배삼식·한승석·정재일은 각각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바 있지만, 네 사람이 한 작품으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창극단과 처음 호흡을 맞추며 창극 연출에 도전하는 정영두는 현대 무용계를 대표하는 중견 안무가로, 2003년 '두 댄스 씨어터'를 창단해 '내려오지 않기'(2003), '제7의 인간'(2010), '먼저 생각하는 자-프로메테우스의 불'(2013) 등을 선보이며 관객과 평단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외에도 다원 '포스트 아파트'(2019) 연출 등 무용뿐만 아니라 장르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섬세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준 바 있다. 창극 '리어'의 연출과 안무를 동시에 맡은 그는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조형적·공간적 사유를 발휘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빈틈없는 풍경을 그려낼 예정이다. 에우리피데스의 동명 희곡을 각색한 '트로이의 여인들'(2016)에서 창극의 매력을 십분 살려냈던 극작가 배삼식은 이번 작품에서도 특유의 한국적 말맛과 감각적 사유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운문으로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창극에 맞는 운율로 풀어내 비극의 감정을 극대화했다. 서로를 예술적 지음으로 여기는 정영두와 배삼식은 음악극 '적로'(2017)를 시작으로 '마디와 매듭'(2021)에 이어 창극 '리어'까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젝트 앨범 '바리abandoned'(2014), '끝내 바다에'(2017) 등으로 오랜 시간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한국 음악의 깊이와 가치를 알려온 한승석과 정재일도 이번 작품을 통해 다시 뭉친다. 작창과 음악감독을 맡은 한승석은 상하청을 넘나드는 음과 다양한 부침새(장단의 박에 이야기를 붙이는 모양)를 활용해 판소리의 운율을 아름답게 살린 배삼식의 언어에 박과 음을 입혀냈다. 증오·광기·과멸 등 비극적인 정서를 담은 무게감 있는 소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장기타령', 서도민요 중 '배치기' '청사초롱' '투전놀이' 등 대표적인 경기민요를 장면에 맞게 차용해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작품의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리의 색깔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작곡을 맡은 정재일이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13인조 구성으로 음악을 선보이며,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앰비언트 사운드를 절묘하게 조합해 언어를 넘은 다의적 형상으로 인물 심리와 극적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해낸다.

무대 위에 그려낸 변화무쌍한 물의 세계 검푸른 물속을 들여다보듯 인간의 심연으로 관객 안내해



무대디자인 스케치 ©이태섭



의상디자인 스케치 (좌 리어, 우 글로스터) ©정민선

국립창극단 '리어'의 무대 또한 각 분야 최고의 제작진이 합세한다. 제31회 이해랑연극상을 수상한 무대미술가 이태섭을 필두로, 창극 '패왕별희'에서 감각적인 조명디자인을 선보인 조명디자이너 마선영, 연극·무용·오페라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의상디자이너 정민선, 분장디자이너 정지호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자연의 질감과 빛으로 구현하며 작품에 힘을 신는다.

무대는 고요한 가운데 생동하는 물의 세계로 그려낸다. 폭 14m와 깊이 9.6m 크기에 달하는 무대 세트에 총 20톤의 물이 채워지며, 수면의 높낮이와 흐름의 변화를 통해 작품의 심상과 인물 내면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잔잔하게 흐르던 저수지의 독이 터져 물이 넘치고, 얼어붙은 물이 녹아내리는 등 변화무쌍한 물의 속성은 '리어'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닮아있다. 무대미술가 이태섭은 “무대 위에 거대한 자연의 이미지를 축소시켜 구현하지만, 연극적 상상력을 통해 자연의 변화와 인물 심리의 변화가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조명은 물의 순환에서 영감을 얻어 폭풍우·먹구름·석양과 같이 물처럼 변화무쌍한 하늘의 이미지를 빛으로 표현한다. 의상디자이너 정민선은 배역의 서사를 표현하기보다는 각 인물이 무대 일부로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무대와 통일된 자연적인 질감과 색감을 사용해 의상을 디자인했다.

제각각의 욕망 속에서 흔들리는 열다섯 명의 소리꾼 절절하고 깊은 소리로 셰익스피어의 비극 노래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서도 '리어왕'은 어떤 작품보다 처절하고 참담하며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을 담고 있지만, 작품에 나타난 배반과 음모, 분노와 저주, 사랑과 충성의 다양한 모습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창극 '리어'는 비단 주인공 리어의 이야기만이 아닌, 욕망의 모양과 방향이 모두 제각각인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에게 시선을 보낸다. 15명의 배우들은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욕망하고 각자의 이유로 물리칠 수 없는 삶의 최전선에서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인물을 그려낸다.

작품의 서사를 이끄는 두 축인 리어와 글로스터는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각각 캐스팅됐다. 두 배우는 모두 창극·마당놀이·뮤지컬·TV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탁월한 연기력과 소리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나이 듦'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며 분노와 회한, 원망과 자책으로 무너지는 인간의 비극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두 배우는 밀도 높은 감정선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저런 상황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관객의 공감을 끌어낼 예정이다.

'작은 거인' 민은경은 막내 딸 코딜리어와 광대를 오가는 1인 2역 연기를 펼치며 극과 극 매력을 선보인다. 명료한 역할 분석과 무대 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소연이 첫째 딸 거너릴을 맡았으며, 호소력 짙은 소리를 지닌 왕윤정이 둘째 딸 리건을 연기한다. 이 외에도 에드거 역의 이광복, 에드먼드 역의 김수인 등 국립창극단 배우들의 다채로운 면면과 조화로운 호흡을 엿볼 수 있다. 15명 소리꾼들의 합창으로 막을 내리는 창극 '리어'는 '이 고요를 위하여, 적막을 위하여, 그 모든 소란이 필요했던가. 보라, 저 하늘가 흐르는 구름의 묘비(墓碑)'라는 마지막 노랫말처럼 깊은 사유와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리어' 공연 콘셉트 사진
(왼쪽부터) 김준수·민은경·이광복·왕윤정·김수인·이소연·유태평양



'리어' 공연 콘셉트 사진

■ 주요 제작진 소개



연출·안무 | 정영두

몸이 가진 시간성과 조형성에 주목하고, 신체의 섬세한 움직임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안무가이자 연출가이다. 여러 장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시도하며 신체와 무용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 2003년 '두 댄스 씨어터(DOO DANCE THEATER)'를 창단, 다수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무용 '내려오지 않기' '제7의 인간' '먼저 생각하는 자-프로메테우스의 불' '심포니 인 C' '새벽', 음악극 '적로', 다원 '포스트 아파트' 등이 있다.



극본 | 배삼식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탁월한 구성력과 깊이 있는 사유, 맛깔스러운 대사로 주목받는 이 시대 최고의 극작가다. 언어와 여백에서 음악이 흐르는 그의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배어있다. 2007년·2009년 동아연극상 희곡상, 2008년 김상열연극상,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4년 제8회 차범석 희곡상 등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연극 '화천가' '1945' '먼데서 오는 여자' '3월의 눈' '은세계' '최승희' 외 다수가 있다.



작창·음악감독 | 한승석

판소리와 굿 음악, 타악까지 두루 섭렵하며 이 시대 판소리가 담보해야 할 인간적 가치와 음악적 양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소리꾼이다. 법학을 공부한 뒤 판소리에 입문했지만 지금은 보기 드문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자 중 한 명이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웅녀' '귀토' 등의 작창을 맡아 국립창극단과 호흡을 맞췄다. 정재일과 앨범 '바리abandoned' '끝내 바다에'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작곡 | 정재일

영화·연극·뮤지컬·무용·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경계 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작곡가·연주자, 음악감독 겸 프로듀서다. '각스'의 베이시스트를 시작으로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연극 '햄릿',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영화 '옥자' '기생충',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았다. 2015년과 2018년 한국대중음악상 크로스오버음반상을 받았으며, 2021년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무대 디자인 | 이태섭

[주요 이력]

2021 31회 이해랑연극상 수상, 2005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2000 제6회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의상상

[주요 작품]

창극 '심청가' '산불' '코카서스 백목원' '장화홍련',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오슬로' '갈릴레이의 생애' '아워타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궁리' '쥐뿔' '오이디푸스' '현존' '천생연분' '뇌우' '떼도적' '레이디 맥베스' '유리 동물원', **오페라** '1945' '천생연분' '가면무도회'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마술피리' '루치아' '카르멘' '휘가로이 결혼', **무용** '마담 프리덤' '천연의 기억' '달곳' '분홍신' '화첩', **뮤지컬** '히드클리프' '소서노' '락햄릿' '청이야기', 기타 국가브랜드공연 '단테의 신곡' 외

의상 디자인 | 정민선

[주요작품]

연극 하지맞이 놀곳풀곳 '불꽃놀이'(무대·의상·소품 디자인) '칼집 속에 아버지'(의상 디자인) '구름'(의상 디자인), **무용** '루돌프'(무대·의상 디자인) '봄의 제전'(무대·의상 디자인) '스윙'(의상 디자인) '진경화'(무대미술) '토너먼트'(의상 디자인) 'Two in Two'(의상 디자인), **오페라** '레드슈즈'(의상 디자인)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무대·의상·영상 디자인) '투란도트'(의상 디자인), **창극** '절창'(미술감독) '내 이름은 오동구'(의상 디자인), **국악** '땅속두더지 두디'(의상 디자인) 등

조명 디자인 | 마선영

[주요 작품]

뮤지컬 '드림걸즈' '인터뷰' '곤 투모로우' '알타보이즈' '타이타닉' '닥터 지바고' '어쩌면 해피엔딩' '여명의 눈동자' 외 다수, **연극** '트루웨스트'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무용** '스윙' '리진',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오를란도 핀토 파초' 등

■ 국립창극단

국립창극단은 판소리를 토대로 만든 음악극 창극으로 한국 고유의 멋과 열, 그리고 신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예술 단체이다. 1962년 창단 이래 지금까지 판소리계 창극 제작 및 레퍼토리화 작업, 현대적 해석과 감각을 입힌 창작 창극 개발을 통해 창극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창극단은 창극의 원형인 판소리 열두 바탕(전창되는 다섯 바탕: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적벽가, 유실된 일곱 바탕: 장끼타령·변강쇠타령·무속이타령·배비장타령·강릉매화타령·가짜신선타령·웅고집타령)과 동서양의 문학에서 음악과 이야기를 길어 올려 창극으로 공연하고, 오늘의 관객과 소통하는 일에 매진해 한국 고유의 음악극인 창극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 주요 인물 및 출연진 소개



리어 I 김준수

"온 목숨이 고통이로다"

- 박금희·안숙선·유미리 사사, 전남무형문화재 29-4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 2021 KBS국악대상 대상, 2020-20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장관 표창, 2013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 2013 국립국악원 온나라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등
- 창극 '홍보展' 홍보 역, '귀토' 토자 역, 춘향 몽룡 역, '패왕별희' 우희 역, '트로이의 여인들' 헬레네 역, '산불' 규복 역, '홍보씨' 홍보 역, '미녀와 야수' 야수 역, '오르페오전' 올페 역,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몽룡 역, '숙영낭자전' 선군 역, '산불' 규복 역, '메디아' 이아손 역, '서편제' 어린 동호 역, '배비장전' 배비장 역,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춘풍 역, '춘향이 온다' 몽룡 역, 기타 '절창' '명색이 아프레걸' 이택균 역, 가무악극 '몽유도원도' 두번째달 '판소리 춘향가' 음반 참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여, 완창 '수궁가'(2018) 외



글로스터 I 유태평양

"눈먼 지금처럼, 사리분별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으련만..."

- 조통달·성창순 사사
- 2016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12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 2010 전주대사습놀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 2010 대한민국인재대상
- 창극 '홍보展' 마당쇠 역, '심청가' 심봉사 역, '귀토' 자라 역, '변강쇠 점 찍고 용녀' 변강쇠 역, '오르페오전' 올페 역, '트로이의 여인들' 고혼 역, '나무, 물고기, 달' 달지기 역, '패왕별희' 장량 역, '시' 배우 역, '홍보씨' 제비 역, '우주소리' 소리꾼 역, '산불' 까마귀 역 등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심청이 온다', '놀보가 온다' 기타 '절창' '명색이 아프레걸' 신동훈/전창근 역, 2017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청와대 초청공연 등 완창 '심청가'(2014), '수궁가'(2003-2010), '홍부가'(1998-2016) 외



거너릴 I 이소연

"사랑하는 나의 아버님, 창해야 마르마난 이 사랑이 마르리까?"

- 송순섭·안숙선·정희석 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
- 2018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우신인상, 2004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 창극 '홍보展' 홍보 처 역, '춘향' 춘향 역, '변강쇠 점 찍고 용녀' 용녀 역, '심청가' 심청 역, '소녀가' 소녀 역, '오르페오전' 애울 역, '귀토' 토모 역, '트로이의 여인들' 카산드라 역, '나무, 물고기, 달' 달지기 역,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춘향 역, '배비장전' 애랑 역, '산불' 점례 역, '홍보씨' 정씨 역 뮤지컬 '아리랑' 옥비 역, '서편제' 송화 역 기타 '명색이 아프레걸' 박남옥 역 외



리건 I 왕윤정

"우리네 청춘은 늙어만 가노라. 피어도 못 보고 시들어 가노라"

- 안숙선·왕기철·염경애 사사
- 2020 KBS국악대경연 대상 2016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 명인부 종합대상
- 창극 '귀토' 앞집토 역, '나무, 물고기, 달' 사슴나무 역, '홍보展' '심청가' '내 이름은 오동구' '장화홍련'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숙영낭자전' '배비장전' '메디아' '서편제'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 '춘풍이 온다' 외



코딜리어 · 광대 I 민은경

“아름다운 그 말들은 가슴에 없나이다. 깊은 슬픔만이 강물 되어 흐르나니”

- 안애란·성우향·김영자 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 2008 KBS 국악대경연 판소리 부문 장원, 2003 임방울국악제 일반부 판소리 부문 최우수상, 2002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
- 창극 '홍보展' 첫째 딸 역, '귀토' 토녀 역, '심청가' 심청 역, '아비. 방언' 단종 역, '트로이의 여인들' 코러스 역, '나무, 물고기, 달' 소년 역,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춘향 역, '서편제' 어린 송화 역, '변강쇠 점 찍고 용녀' 외과의녀 역, '메디아' 크레우사 역, '십 오세나 십육세처녀', '오르페오전' 등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 뮤지컬 '서편제' 송화 역, 기타 국가브랜드공연 '화선 김홍도' 어린 홍도 역, '명색이 아프레갈' 나애심/윤심덕 역, 완창 '심청가'(2017)



에드거 I 이광복

“살아라, 살아남아라. 바람이 머리를 쓸어 주네. 나무들 말없이 안아 주네”

- 김수연·송순섭 사사
- 2008 전국국악대전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05 전주대사습놀이 일반부 장원, 2004 구미전국국악대전 종합대상(국무총리상), 2002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차세대 명창' 선정
- 창극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몽룡 역, '숙영낭자전' 선군 역, '서편제' 중년동호 역, '춘향2010' 이도령 역, '로미오와 줄리엣' 로묘 역, '귀토' 토부 역, '심청가' 화주승 역, '홍보씨' 원님 역, '트로이의 여인들' 탈튀비오스 역, '적벽가' 조조 역, '배비장전' 방자 역, '홍보展' 검은고깔제비 역,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춘풍 역, '춘향이 온다' 몽룡 역, '놀보가 온다' 마당쇠 역, '심청이 온다' 심봉사 역, 기타 '명색이 아프레갈' 김영준 역, 영화 '바다로 간 해적' OST, '도리화가' 길중 역 외



에드먼드 I 김수인

“하늘이야 운명이야 애꿎은 원망 마소. 제 손으로 부른 화를 누구를 탓하리오?”

- 안숙선·김선아·한승석 사사
- 2013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고등부 금상
- 창극 '나무, 물고기, 달' 물고기 역, '귀토' 오르페우스 역, '홍보展' 흰털발제비 역, 기타 2020 전주세계 소리축제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수궁가', 2017 한-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공연 외